

해방후 좌우합작운동시 미국의 역할

— 합작초기를 중심으로 —

梁 彰 珍*

목 차

머 리 말
합작주도세력에 대한 기존의논의 및 문제점
미국의 좌우합작 개입동기
합작초기 미국의 역할

머 리 말

최근 8.15를 전후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행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의 부족과 아직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으로 인해 그나마 이룩된 많은 연구업적들이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당시에 규정되었고 또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의 경험적 사실을 통해 고착화된 반공이데올로기적 사회체제가 오늘도 면면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서 그만큼 현대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의 이해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규정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거의 붕괴되는 세계사적 조류에 편승하여 통일을 주도적으로 모색해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아직 분단이 명시적으로 되지 않았던 당시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의 교훈을 배워 같은 오류를 되풀이 말자는 의미에서도 뜻 있는 일일 것이다.

해방후 한국의 좌우익 정치세력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의 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정치학.

반문제를 두고 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미. 소 양대국이 자국의 이해를 조선에서도 관철시키려는 의도의 산물이었고 따라서 그 과정에 우리 민족의 의사가 수용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결국 신탁통치문제로 인한 국내의 대립도 국내 정치세력간의 대립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강대국의 이해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민족적 대의(?)에 입각하여 좌우익의 통합을 시도한 움직임이 있었으니 곧 좌우합작운동이 그것이다. 물론 일제시대에도 신간회운동을 통하여 좌우익의 사상투쟁을 지양하고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단일목표하에 일시나마 결집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 통치라는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명시적이고 전반적인 운동으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신간회 운동과 비교할 때, 해방 직후의 좌우합작운동은 직접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제외하고서도, 당시의 모든 정치세력의 관심사였고 또 하나의 큰 정치세력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었다. 하지만 역시 이 운동도 결국에는 좌우익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장벽을 넘지 못함으로써 실패하게 되었다.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강대국의 이해 중에서도 실제로 남쪽을 점령한 미국의 이해는 좌우합작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정도로 분명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좌우합작운동과 관련된 강대국의 이해관계 중에서 미국과의 관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좌우합작시 미국의 역할을 고찰할 때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합작 초기 미국의 역할이다. 이 부분에서는 과연 누가 합작을 처음 제기 주도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처음 제기했다는 주장이 상당히 거센 실정이다. 둘째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좌우합작 7원칙이 합의. 발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의 미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이 글에서는 앞의 합작제기자(주도자) 문제 및 미국의 역할문제에 분석의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국이 좌우합작에 개입하게 된 동기를 당시 국내의 문서들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합작 초기의 구체적 실상, 즉 좌우합작을 둘러싼 미국의 역할을 합작 초기의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석과정에, 합작에 참여했던 여운형과 김규식이 당시에 처했던 입장도 부분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합작주도세력에 대한 기존의 논의 및 문제점

그러면 좌우합작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 여운형계열의 온건좌익과 김규식·원세훈계열의 온건우익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동화를 들 수 있다. 그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몽양(여운형의 호)은 미·소공위의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회의의 결렬이 확실해지자 몽양은 하나의 사후대책을 긴급히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좌우합작추진이 그것이다.…… 당시의 정세 아래서는 미군정과 대립하여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간에 침체화한 좌우익의 대립을 완화시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야 할 간절한 필요를 느끼고 있던 미군정도 좌우합작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¹⁾

여기에 따르면 여운형계열이 먼저 좌우합작을 우익측에 제안했고 제3자인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지지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글들에는 합작에 가입하는 미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결국 합작운동은 여운형을 중심으로한 중도세력에 의해 제기·주도되었고, 또 이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볼때 가장 합리적인 민족주의 운동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행사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당시 중도세력의 정치적 자주성을 부각시키려는 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편 좌우합작은 처음부터 미군정측에서 앞선했고 또 장소까지 제공하는 등의 호의를 베푸는 점으로 볼때, 합작운동이 국내 온건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동안과 송남헌은 좌우합작운동이 처음부터 미군정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글들에서 이같은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서 마샬장군을 앞세워 소위 국공합작을 적극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무성은 한국문제도 좌우합작에 의한 미·소공위의 재개를 촉진시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미군정의 지지하에 김규식·여운형의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 좌우합작을 고안하고 추진한 사람은 하지중장의 정치고문으로 굿펠로우 대령의 후임으로 부임한 레오나드 버취중위였다. 그는 당시 미군의 중위 계급 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군정청에서 가

1) 이동화, 「8.15를 전후한 여운형의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I, (서울:한길사, 1980), 359-360쪽.

장 실력을 발휘한 군인이었다.²

반미적인 좌익이 미군정이 추진하는 타치를 지지하고, 친미적인 우익은 미군정의 로선과는 반대되는 반탁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해서, 미군정청은 도와서는 안될 적을 돕고, 싸워서 안될 동지와 싸우게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좌우정치세력이 모두 미군정청을 비난하고 있어 당시 미군정청은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져 있었다.

남한에서의 좌우합작운동은 미국측이 이같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모스크바 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한 내의 정치적 지렛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것이다.³

미국이 합작제의를 먼저 했다는 사실은 당시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의 기자회견 내용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⁴ 이 내용은 개인의 기자회견문이지만 어느정도 믿을 만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같은 내용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반박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또 이보다 앞선 1946년 5월 23일 군정장관 버취가 허헌과 여운형을 초청하여 미·소공위휴회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김규식, 원세훈과 4인회담을 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당시 좌익계역이 발행했던 「조선인민보」에 실려 있다.⁵ 따라서 좌우합작을 미국이 먼저 권유했다는 설이 유력한 듯싶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합작할 것을 양씨에게 권유했다고는 하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5월 25일 회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세훈은 서두에서,

“우리 일을 가장 걱정하는 外人(버취)이 ‘여운형·허헌 양씨와 나와 김규식박사가 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는 말을 듣고 나는 그에게 ‘이 회견의 요청이 여·허 양인으로부터 온 것인가 혹은 당신이 居中 斡旋하는 것인가’ 함에 대하여 氏は ‘여·허양씨의 요청이라면 요청이나 나의 알선이라면 나의 알선이라고 하겠다’고 대답하였다.”⁶

라고 한 적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전부터 여운형·김규식측과 미군정

2) 송남헌, 「해방삼년사」 II(서울: 까치, 1985), 366-367쪽.

3) 양동안, 「남북한 정부수립과정 비교」, 구범모 외 3인, 「정치적 정통성연구」(성남: 한국정치신문화연구원, 1990), 175쪽.

4) 뒤의 원세훈 기자회견내용 참고.

5) 「조선인민보」, 1946년 5월 26일자. 심지연 「해방후 許憲의 정치활동분석」, 「전환기 한국정치학의 새지평」 峻峰 具範護교수 화갑기념논총, (서울: 나남, 1994), 445쪽에서 재인용.

6) 「동아일보」, 1946년 5월 29일자.

측 간에 서로 논의가 있었던 듯하다.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및 자료로 볼때, 좌우합작은 좌익세력에서 박헌영의 독주에 위기를 느낀 여운형과, 이승만을 중심으로한 강경우익의 노선에 어느정도 반감을 가진 김규식·원세훈의 이해와 미군정의 이해가 맞물리는 과정에, 미군정측의 고무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⁷⁾

이하에서는 좌우합작을 제의하게 된 미군정측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국의 좌우합작 개입동기

조선반도의 남쪽을 점령한 미국의 이해는 분명한 것이었다. 즉 모든 점령군이 그러하듯이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진주하는 처음부터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는 물론 국내에서 정부를 자칭하는 어떠한 세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진주 전에 선포된 인민공화국도 당연히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좌우합작은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첫 시도였다. 그러면 미국이 같은 우익세력을 두고 좌우합작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미국이 조선에서의 좌우합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방지하고, 또 소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 민중이 바라는 개혁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당시로서는 개혁적인 인사들에게 정권을 맡길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 식민지에서 갓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개혁적 성향을 지닌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일반민중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⁸⁾

둘째는 미·소공위의 결렬로 강경한 좌우익에 대해 어느정도 반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선에서의 신탁통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미국무성은 46년 9월 13일자 로 랭던에게 보낸 한 비밀서한에서,

(미·소)공동위원회의 장차 토의가 공식적으로는 임시정부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38도선을 철폐시키고 미·소공동 행정체제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실현

7) 처음에 한민당에 속했던 원세훈은 좌우합작에 미온적인 한민당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기에 이른다.

8) 이것이 부득이할 때는 우익인사 중에서 김구에게 만이라도 진보적인 강령을 실행하도록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미국무성이 맥아더에게 보내는 메시지」, 1946년 3월. 김국태 옮김, 『해방3년과 미국 I』 (서울: 돌베개, 1984), 236쪽.

가능성이 있는 과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 모스크바 협정의 신탁통치목표에 대한 강조는 삼가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한국인들을 고무하여 신탁통치의 포기도 있을 수 있다거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⁹⁾

고 자신들의 조선에서의 신탁통치를 위한 단호한 행동지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서의 신탁통치를 먼저 주장하고 또 강력하게 희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4개국, 즉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조선에서의 신탁통치를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 중 2개국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여서 차후에 수립될 정부가 친미정부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에서의 신탁통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정치체제였던 것이다.

조선의 독립과 이를 위해 일정기간 조선에서 신탁통치를 하기로 결정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수립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미·소공위에 대한 참가문제를 놓고 국내 좌우익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미·소공위는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미·소공위에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 중에서 주된 것이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정당·사회단체만이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었는데, 이미 신탁통치문제를 두고 좌우익은 분명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우익은 탁치안을 극렬히 반대했고 반면 좌익측은 처음에는 같이 반대하다가 소련의 지시에 따라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¹⁰⁾

사실상 신탁통치실시를 먼저 주장한 미국은 우익이 신탁통치에 대해 가장 극렬히 반발하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승만의 지도하에 있는 우익은 '미국인이 당연히 해야만 될 정부 수립에 있어 하등의 계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¹¹⁾하며 미

9) 「미국무장관 대리가 미군정 정치고문 랭던에게 보내는 비밀서한」, 김국태 옮김, 『해방3년과 미국 I』(서울: 돌베개, 1984), 347-348쪽.

10) 조선공산당이 찬탁으로 급선회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련의 지시라는 막연한 추측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전 노동당 고위간부인 서용규(徐容奎)의 증언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 주요 골자는 박헌영이 평양 방문시 소련으로부터 찬탁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권, 187-192쪽 참고.

11) 리처드 E. 라우터백, 『한국미군정사』(서울: 돌베개, 1984) 113쪽.

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렇다고 조선반도에 자신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정부를 세우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미국은, 우익을 배제하고 소련의 주장대로 좌익세력만 미·소공위에 참가시킬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군사적 점령정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투영된 미국정부의 의도는 한국의 독립을 원조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모스크바 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성취함과 동시에 미국의 기본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¹²⁾이었다. 이렇게 미국이 태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좌익측에서는 하등의 근거도 없이 '실제에 있어 미국인은 막부(모스크바) 협정을 무시하고 한국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계획 밑에 전진하고 있다'¹³⁾고 선전하고 다녔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좌우익의 정치세력이 다같이 미군정청을 비난하자 미군정청은 더욱 고립되고 한국에서의 미국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고 이에 따라 미군정은 강경좌우익을 배제하고 중도성향의 세력을 중심으로한 좌우합작을 적극 추진, 지원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군정당국은 좌우익의 강경세력을 배제시키기 위해 정관사 위조지폐사건을 발표하고 그와 관련하여 조선공산당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는 한편 공산당기관지 「해방일보」를 정간처분했다. 뿐만 아니라 극렬하게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우익계 신문인 「대동일보」에 대해서도 정간처분을 했다.¹⁴⁾

결국 더 나아가서 미국으로서는 자신에 우호적인 정부수립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우익세력과 온건세력을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했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서는 좌익의 강경세력을 배제하는 한편 또 소련과의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강경우익세력도 배제시킬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한 비밀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2) 이와 관련된 내용은, 미국무성 점령지구담당 차관보(힐드링)가 육군성 작전처에 보내는 비망록 중 한국에 관한 정책교서의 결론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다. 김국태, 앞의 책, 293-294쪽 참고.

13) 리처드 E. 라우터백, 앞의 책, 113쪽.

14) 몇 주에 걸친 반복된 특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 신문 기관중의 하나가 두드러지게도 자유신문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왔다. 그리하여 본인은 오늘 대동일보에 대하여 속간후에도 적절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보다 개선된 국제적 및 지역적 우호관계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본인을 이를 폐간시킬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동 신문에 대한 3주간 정간처분명령을 발표하였다. 「1946년 5월 15일 하지중장 특별 담화문」, 김국태, 앞의 책, 281쪽.

공동위원회의 회담의 결렬을 표현의 자유원칙에 대한 미국의 고집과 소련의 공공연히 반소적인 특정한국인 지도자들의 한국임시정부 참여금지 결정간의 의견충돌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들 지도자들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한국에 돌아와 원로 망명한국인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정치여론을 완전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서나 혹은 남한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사람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정치무대에서의 출현은 소련과의 협정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킬 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 그들의 한국정치에의 참여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해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기 보다는 해를 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¹⁵⁾

심지어 미국측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래 한국으로 돌아온 한국인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은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대해서는 안될 것'¹⁶⁾이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들 우익인사들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려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소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었다.

이렇게 소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미국의 내심은 다음의 미국무성 비밀문서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김구일파와도 연결되지 않았으면서 소련의 조종을 받는 세력파도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의 지역내에서 물색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러한 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망명의 경력 때문에, 또한 그들이 분명히 (중국)국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과의 오랜 기간에 걸친 교제에서 얻은 국무성의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때문에 우리는 김구 및 이승만 일파에 대해 결코 어떠한 호의도 보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와 같은 진보적인 지도세력을 발굴해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김구일파로 하여금…… 진보적인 강령을 채택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강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김구일파가 그같은 강령 채택을 거절한다면 그들이 더이상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¹⁷⁾

15) 김국태, 앞의 책, 298쪽.

16) 김국태, 앞의 책, 294쪽.

17) 「미국무성이 맥아더에게 보내는 메시지」, 1946년 3월, 김국태, 앞의 책, 236쪽.

결국 미국으로서는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을 배제하고, 온건 좌우익을 포함한 중간세력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해보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극좌세력은 물론 배제대상이었고 극우세력 중에서도 최소한 이승만은 배제 대상이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미국측 위원이었던 찰스 데이어(Charles W. Thayer)는 워싱턴의 한 비밀 대담에서

‘미군정은 양극단 즉 이승만의 우익 및 및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배제시킬 것을 희망했다. 반대로 합작에 대한 우익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장차의 중도세력의 지도자로 간주되는 김규식을 지지하도록 김구를 설득하였다. …… 현재 이승만은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오래 살아 남아 왔으며, 이제는 한국의 정치 무대로부터 조용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¹⁸⁾

고 하였다. 이같은 강경우익에 대한 불신은 소련을 의식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었다. 1946년 랭던은 평양 방문시 ‘소련정부가 김구와 이승만에 의해 지배되는 임시정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랭던이 직접 발라사노프에게 ‘미국은 이승만과 김구의 통제하에 있는 임시정부를 구성하려고 노력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시켜주었다고 10월 3일자로 미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¹⁹⁾ 그리고 실제로 강경한 우익세력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들을 취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당시 중국에서도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간에 제2차 국공합작이 추진중에 있었고, 또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같은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리라는 미국측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좌우합작의 성공과 신탁통치의 순조로운 실시였다. 미국이 신탁통치를 의도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좌우합작의 협상 대상을 찾는데 있어서도, 처음부터 김규식과 여운형을 좌우합작의 적임자로 본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규식은 대한임시정부 내의 중간노선의 이론가였고 이승만과 과격세력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졌다. 그런데다가 이승만과 김구가 정당의 통일에 성공하지 못하자 그에게 친소진영을 제외한 각 정당의 통합을 기대했던 것이다.²⁰⁾

18) 「미국무성 일본과에서 실시된 대담 비망록」, 1946년 7월 16일, 김국태, 앞의 책, 319-320쪽.

19) 「10월 3일 랭던 평양방문시 국무장관에게 한 보고」, 김국태, 앞의 책, 356-357쪽.

20) 리처드 E. 라우터백, 앞의 책, 52-53쪽.

여운형의 입장도 그와 비슷했다. 해방직후부터 여운형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박헌영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운동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박헌영은 쉽게 그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운형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을 묘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즉 강경 좌우익이 미군정으로부터 호의를 얻지 못하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좌우합작에 의한 권력장악을 시도했던 것이다. 여운형과 박헌영 사이의 갈등은 공공연히 표출되었다.²¹⁾

이러한 상황적 배경이 미군정당국으로 하여금 김.여 양씨를 끌여들여 적극적으로 좌우합작운동에 개입하게 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합작초기 미국이 수행했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합작초기 미국의 역할

미국이 좌우합작의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앞서 살폈듯이 미국은 좌우합작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둔 미군의 정치고문인 랭던은 46년 5월 24일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문서 “…… ‘좌우합작회담’이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문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개입없이 애국적 정당들간의 만족할 만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하지장군은 그의 최고권한하에서 모스크바 결정에 의한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법령을 제정하게 될 비행정적 한국인 내각 및 입법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정부 사업에 그들의 참여를 증진시키자고 제안할 예정”²²⁾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좌우합작 1차 예비회담이 5월 25일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합작 예비회담이 있기 전부터 모종의 회합이 있었고 미국이 깊이 개입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합작을 위한 1차 예비회담도 46년 5월 25일에 미군중위 버취의 알선으로 그

21) 여운형은 좌우합작이 진행되던 46년 9월에 “나는 인민당의 당수로서 새로운 노선을 밟겠으며, 공산주의자는 당원에서 제외하겠다”고 성명하였고 그 다음날 그는 납치당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인민들이 미국의 남조선 입법의원설치에 관하여 협력하지 않길 나에게 희망하고 있다”고 협박받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피력하였다. 리처드 E. 라우터백, 앞의 책, 55쪽.

22) 김국태, 앞의 책, 287쪽 참고.

의 집에서 열렸다. 이날 우측을 대표하여 김규식, 원세훈이 참석을 했고, 좌측을 대표해서는 여운형과 황진남이 참석을 했다. 이 회담에 대해 원세훈은 개인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 일을 가장 걱정하는 外人이 여운형·허헌 양씨와 나와 김규식박사가 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는…… 이리하여 회견의 기회가 한두차례 변하였으나 결국 이십오일 오후에 모처(버취의 집)에서 버취, 아펜셀러 양씨와 김박사 및 나와 여·황 등 6인이 회합하였는데 버취씨가 먼저 개회사 비슷이 '이것은 당신네들 일이니 당신네들 마음대로 잘 타협하시오' 하니,

元, '나는 당신에게 부끄럽소. 우리일을 우리가 못하고 외인의 알선으로 이같이 함은 대단히 미안하오. 우리가 여지껏 한 일은 다 덮어 놓읍시다. 그리고 다만 완전독립에 좋은 안이 있다면 말하시오'

상대방, '합작의 안이 없다.'

元, '아무안이 없이 만나면 무엇하는가' 하고 이편안을 피력하였다.

元, '다같이 완전독립을 한다면 합작할 수 있다.'

金, '전적으로 즉시독립을 목적이면 합작할 수 있다.'

呂, '독립이야 다 원하는 바이나 託治란 말을 해석해보자' 하며 해석하였다.

元, '탁치에 대한 해석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김박사가 삼팔도 이북의 惡實情을 언급하니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 양씨는 퇴장하고 말았다.²³⁾

이 회합에는 버취중위 외에도 미국인 선교사 아펜셀러가 읍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좌우합작에 대한 미군정의 깊은 관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어서 5월 30일과 6월 14일에도 두차례에 걸쳐 예비회담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미군정측은 좌우합작을 지지하기 위하여 6월 30일과 7월 2일에 하지중장과 아놀드 소장의 명의로 각각 합작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미군정의 적극적인 합작지지 태도에 직면하자, 이승만과 김구를 비롯한 국내의 주요 정치세력은 각자 그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⁴⁾ 그리고 좌익측도 나중에 합작원칙을 제시

23) 「동아일보」 1946년 5월 29일자, 「자료대한민국사」 2권, 673-674쪽.

24) <이승만의 성명>(1946년 7월 1일)

내가 이때에 공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는 金九씨와 내가 이미 협의하고 김규식 박사가 여운형씨와 교섭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언명하였다. 여운형씨의 협조를 얻으면 우리 민족통일이 좌익과까지 포함되어 더욱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金-呂 양씨가 이번에 이를 성취한다면 우리 광복대업에 큰 공헌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독당의 담화>(1946년 7월 2일)

하는 등 일시적이고 형식적이거나 지지를 표명하게 된다. 그리하여 나중에 정례회 답에는 민주주의민족전선 사무국장이었던 이강국이 좌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강국은 합작회담을 맹렬히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글의 후속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은 좌우합작 참여세력에게 높은 정치적 비중을 부여하기 위하여, 46년 10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한달간 실질적인 정부간 회담이나 다름없는 '한-미공동회담'을 개최하였고, 여기에 한국측 대표로는 좌우합작참여자들을 참석시킨다. 그런데 이 '한-미공동회담'의 제안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약간의 논쟁거리이다. 송남헌은 46년 9월 및 10월에 있었던 용산철도파업 및 대구, 경북지역의 각종 소요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합작위측에서 미군정에 회담을 제의하여 성사를 보았다고 보고 있고²⁵⁾, 양동안은 미국측이 합작위측으로 하여금 회담을 제의하게 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²⁶⁾ 어쨌든 이 회담은 합작위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게다가 미국은 한-미공동회담이 있기 전인 10월 12일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창설 및 선거를 공표하고, 10월 21일에 민선의원선거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하지중장이 관선의원을 선정했다. 그리하여 합작위측인 김규실을 의장으로 과도입법의원은 12월 12일에 개원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입법의원의 재적의원은 90명이고 그중에 민선의원이 45명, 군정사령관 하지가 임명하는 관선의원이 45명이었다. 그런데 민선의원선거에서 한민당의 거두인 김성수와 장덕수가 당선되었는데, 합작위측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이 두사람의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자 미군정측에서는 이를 수락하였고, 재선거에서 이 둘은 낙선하게 된다. 또한 관선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45명중 합작위측의 인사 31명을 임명하는데서 드러났듯이 좌우익을 배제하고 합작위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려는 미국의 의도는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전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하며 더욱 고령중에 병구로서 임무를 수행사시기에 희생적으로 분투하시는 김박사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이 다시 실패가 없이 꼭 성립되기를 간망하면서 이일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이외에 인민당, 한민당, 사회민주당 등 거의 국내의 모든 정치세력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25) 송남헌, 앞의 책 384쪽.

26) 양동안 외, 『현대한국정치사』, 75쪽.

결국 당시 가장 강력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던 강경 좌우익을 배제하고 이들을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을 보면 좌우합작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얼마나 컸었나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방직후의 좌우합작운동이, 그동안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간파의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노력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미국의 힘도 보다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간파 정치세력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과장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여기서 말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上, 下(서울: 중앙일보사, 1993).
- 도진순, 「1945~1946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우익진영의 분화」, 『역사와 현실』 7호, (서울: 역사비평사, 1992).
- 심지연 「해방후 허헌의 정치활동분석」, 『전환기 한국정치학의 새지평』 峻峰 具範謨 교수 화갑기념논총, (서울: 나남, 1994)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 2, 3권 (서울: 탐구당, 1970).
- 이동화, 「8. 15를 전후한 여운형의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I, (서울: 한길사, 1980).
- 김국태 옮김, 「해방3년과 미국 I」(서울: 돌베개, 1984).
- 양동안, 「남북한 정부수립과정 비교」, 구범모 외 3인, 「정치적 정통성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송남헌, 「해방삼년사」 I, II (서울: 까치, 1985).
- 리처드 E. 라우터백, 「한국미군정사」(서울: 돌베개, 1984).
- 김남식 외 2인,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0」(서울: 돌베개, 1986).
- 양동안·이정식 외, 「현대한국정치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